



중 플라스틱업계 고유가로 '휘청'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존 모색 필요

중국 플라스틱 제조업계가 고유가의 타격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고유가로 원가 상승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국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1/3 가량이 조업 중단 및 도산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걸지 못할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절강성 寧波港의 2003년 플라스틱 원자재 수입가격은 톤당 7백50달러였으나, 지난해 3월에 9백56달러로 인상됐다. 절강성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 거점도시인 余姚에서의 가격은 금년 3/4분기에 1천6백달러까지 올라 작년의 2배 수준을 기

록했다.

산업구조상 국제 가격 폭등은 중국 플라스틱 가공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1만여개의 가공업체가 밀집한 절강성 臺州에서는 현재 전체 기업의 1/3이 조업 중단 또는 도산 상황에 처해 있으며 余姚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광둥성 東莞 소재 업계에 따르면, 광둥성도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전했다.

성탄절 선물용품은 7~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생산된다. 그러나, 고유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1~9월간 광둥성, 절강성을 비롯, 중국 전역에 걸쳐 수출액은 1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한편, 고유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 절강성 黃岩 소재 플라스틱 금형 제조업체는 독자적인 기술 및 설계력으로 개발한



상품을 바탕으로 제품 원가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 고유가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고유가가 생산비용에 반영돼 가격이 평소의 2.5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미국 등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꾸준히 수주를 받고 있다.

이 업체의 생산 비용 중 플라스틱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플라스틱 원자재 비중이 생산비용의 50%임을 감안할 때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인도, 포장재 수요 급증 한국, 인도시장 적극 공략 필요

인도에서 이종판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죽, 섬유, 의약품과 같은 제품의 수출증가가 포장재료의 수요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 남부에서 가죽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섬유쿼터 해지로 인해 직물 및 의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용 포장재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 이외에도 계절적인 요인 즉 공백과 성냥갑 등과 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가 됨에 따라 이종판지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포장재 제조업체들은 kg당 가격을 1~1.5루피를 인상해 kg당 가격은 19~21루피

(0.45달러)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소규모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해 kg당 약 18.5루피(0.41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포장재 가격은 인도 축제인 디왈리(Diwali - 인도의 최대 명절로 추수감사절 형태)가 지나 가격은 다소 진정된 상태이다.

타밀나두 주의 이종판지 수요는 월 평균 1만2천톤이며, 주로 첸나이, 시바카시, 띠루푸르, 꼬임바도르에서 소비되고 있다. 첸나이를 예들 들면 가죽제품이 주요 이종판지 수요처로써 월 평균 약 2천톤을 소비하고 있으며, 사용처는 신발박스 및 지갑 포장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첸나이에는 이러한 제품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종판지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 남부 주요 섬유수출단지인 띠루푸르는 이종판지를 월 평균 7백50~1천톤을 소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소비량이 25~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 포장재 딜러 및 제조업체들은 산업용 포장재뿐만 아니라 소매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포장재 취급 업체들은 제품 다양화 및 고급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인도의 포장재 시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도의 소비자들은 포장재에 대한 실용성과 함께 미적 감각이 가미된 디자인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의 포장재 수요가 증가하고 고부가가치의 포장재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급 포장재를 공급하는 수출업체들은 인도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中, 포장용 크라프트지 수요 급증 강력한 경쟁업체 급부상

최근 중국 내 포장용 크라프트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연열풍에도 불구하고, 흡연 인구수가 줄지 않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담배 소비 대국으로 이미 부상하여, 담배 포장용 크라프트지 수요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 총생산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국 담배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 내 주요 담배회사들이 원래 동판지를 주 원료로 한 소프트케이스의 담배 포장을 고급형인 하드케이스로 바꾸어 가면서, 담배 포장용 크라프트지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크라프트지 시장에서는 중국 국내 공급물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제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메이커들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있어 외국 제지회사들의 강력한 경쟁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비록 수입관세가 2003년 7.5%까지 떨어졌지만, 크라프트지가 다른 종이 제품보다는 비교적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업체가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필프는 무관세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상 우위를 지닌 중국업체가 딜리버리 등에서도 외국 업체보다 앞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수입 크라프트지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메이커들이 제품 품질 향상에 투자를 게을리하면, 수입제품과의 경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담배 포장용 크라프트 시장의 경우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다른 크라프트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日, 유통업체 중국진출 러시 외국업체, 중국시장공략 가속화

패밀리마트, 로손 등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체인(FC) 전개를 통한 점포망 확대를 가속화하는 등 고성장이 지속되는 중국의 소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OTRA 후쿠오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이 WTO 가입으로부터 3년이 되는 지난 해 12월 11일 이후 외자규제 완화책으로서 프랜차이즈 해금과 유통분야의 출자제한을 철폐하면서 일계기업 등이 외자 1백% 출자로 프랜차이즈 본부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체인 전개는 중국기업에 한정돼 왔지만 외자에도 개방함으로써 유통업체들은 점포전개의 경쟁력 및 리스크 분산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로 현지의 개인사업주로부터 프랜차이즈체인 가맹을 모집해 5년 계약에 가맹금은 중국화폐로 6만위안으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북경, 광주, 대련, 천진에 진출해 2008년말에는 상해를 포함하는 5개 도시에서



1천점의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손은 현재 2백개 점포의 90% 이상을 프랜차이즈체인점으로 전환한다.

新점포는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체인으로 하고 연간 1백개 점포를 초과하는 페이스로 출점할 계획이다. 내년도에 상해주변의 질강성과 강소성에 진출해 2010년에 상해와 인근도시에서 2천개 점포까지 늘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의점 최대기업인 세븐일레븐 제팬도 북경 점포의 프랜차이즈체인화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가맹자가 자기자본으로 출점한 경우 본부의 부담을 직영점에 비해 10% 이하로 낮출 수 있다.

90년대부터 일제 편의점의 진출을 계기로 현지 자본에 의한 일제점포를 모방한 체인이 도시부를 중심으로 급증했으며 상해 및 북경에서는 출점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英, 식품 품질변화 인식 포장 라벨 개발 올해 초 상품화 가능

포장된 식품의 품질 변화 여부를 라벨(label)의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는 새로운 포장 기술이 영국에서 개발됐다.

수용성 잉크를 사용한 새로운 라벨 시스템에서는 지나친 습도 또는 수분 함량 등 상품 품질의 열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리 설정해 적용시킴으로써 상품을 개봉하지 않고도 라벨을 통해 포장 안에 담긴 제품의 품질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식품 제조업계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차별화

수단으로서 또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포장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기술은 포장을 통한 최종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컨셉을 적용시킨 가장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올해 초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케팅 분석회사인 BCC는 이 같은 포장 개념이 미래 식품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간편하게 포장된 식품, 신속한 조리가 가능한 식품 또는 이미 조리가 다 된 식품들로 보존 기간이 긴 식품들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용성 라벨은 안전 밀봉의 형태를 지니며 일단 한 번 포장으로부터 제거가 된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형태로의 복원이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차가운 물이나 더운물에서 분해가 되도록 되어 있다. 수용성 잉크 인쇄 시스템 회사와 접착제 회사의 원료 공급을 통해 산업적 수준의 상업화 단계의 초기 과정에 놓여있다.

기타 최근에 이루어진 혁신 연구 가운데 특수 측정 장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양의 방향성 성분들이 물질에 침투가 됐는가를 측정하는 기술로서 관능 평가와 화학적 분석 연구 결과들이 이 같은 개발에 밑받침이 됐다. 한편, 핀란드 VTT Technical Research Centre에서는 최근 잉크젯 프린트 인디케이터로서 플라스틱 포장 물질에 센서 잉크를 이용해 라벨링을 하는 것인데, 포장된 상품에 산소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잉크가 반응을 보이게 함으로써 포장이 새거나 조절된 기체 하에서 포장된 부패가 용이한 식품의 산소 노출 여부를 지시해 주는 포장방법을 개발 중에 있다. 